

유지 혈액투석 치료 중인 말기 신부전 환자에서 A형 간염에 대한 방어 면역 항체 (면역글로부린 G)의 양성율에 대한 연구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및 신장연구소

윤종우 · 이영기 · 최명진 · 구자룡 · 노정우

Prevalence of Protective Immunoglobulin G Antibody in Maintenance Hemodialysis Patients

Jong-Woo Yoon, Young-Ki Lee, Myoung Jin Choi, Ja-Ryong Koo, Jung-Woo N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 Hallym Kidney Research Institute College of Medicine Hallym University

목적: A형 간염은 만성화 되는 경우가 없이 급성 이환을 주로 보이지만 1% 정도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전격성 간염으로 발전 할 수 있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일반 성인 중에 A형 간염에 대한 항체 양성율이 매우 높았으나 사회 경제적 발전에 따라 최근에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 병의 이환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2009 년 대한 간학회 보고 자료에 의하면 급성 A형 간염의 발생이 13,448건으로 20년 전의 약 10배 이상 증가 하였고 전체 급성 간염에 의한 입원의 약 80%를 차지 하고 있다. 만성 콩팥질환 환자, 특히 혈액투석 환자의 경우 면역기능의 이상과 도관의 사용등으로 인한 감염에의 노출위험 증가로 각종 감염병의 발생율이 높고 발생시 이환 및 사망이 높은 실정이다. A형 간염의 경우 혈중 방어 항체가 없으면 예방접종을 통해 방어 항체를 가질 것이 권고 되고 있으나 혈액 투석 환자에서의 방어 항체 양성율에 대한 보고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방법: 3개월 이상 혈액 투석 치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2주간 급성 열성 질환의 이환이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A형 간염에 대한 방어 면역항체 (Immunoglobulin G)의 양성율과 그 항체가를 혈청 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환자의 혈액을 원심 분리하여 얻은 혈청을 CMIA (Chemiluminescent microparticle immunoassay)방법을 통해 항체가를 측정하였다.

결과: 전체 171명의 환자중 164명에서 항체가 있어 95.88%의 양성율을 보였다. 연령이 높을수록 양성율이 높았고 (58.74 ± 11.42 vs 30.92 ± 29.32 , $p=0.01$) 투석 기간이 길수록 양성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51.08 ± 51.94 vs 30.92 ± 29.32). 대도시인 서울 거주자와 지방도시인 춘천 거주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20대와 30대에서 항체 양성율이 50% (5명/10명)로 상대적으로 낮았고 이는 2009년 대한 간 학회에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결론: 혈액투석 환자의 A형 간염에 대한 방어 항체 양성율은 약 95%이고 주로 30대 이하에서 50%이하의 양성율을 보여 건강한 성인의 분포와 차이가 없었으며 이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예방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혈액투석, A 형간염, 방어항체

Hemodialysis, Hepatitis A, Immunoglobulin G